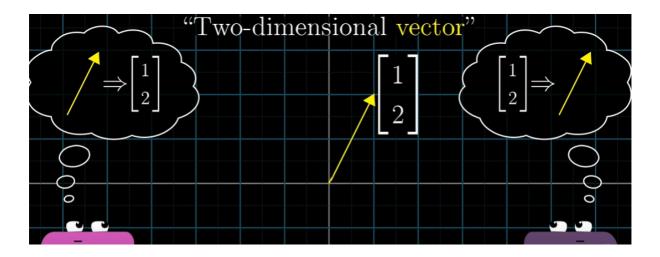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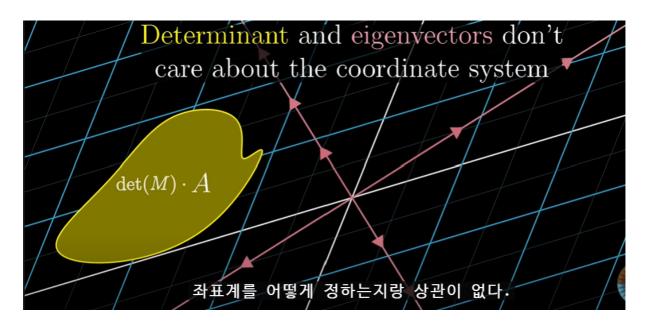
Chapter 16

Abstract vector spaces



벡터를 화살표로 정의한것인지 화살표를 정의하기 위해 벡터를 사용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 determinent는 기저 벡터와 상관 없이 성립한다.(좌표계와 상관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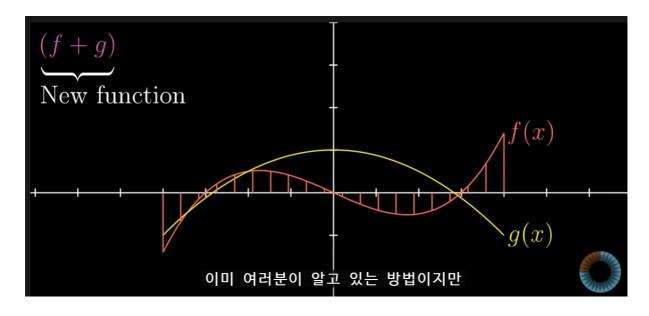


• determinant : 변환이 면적을 얼마나 스케일링하는지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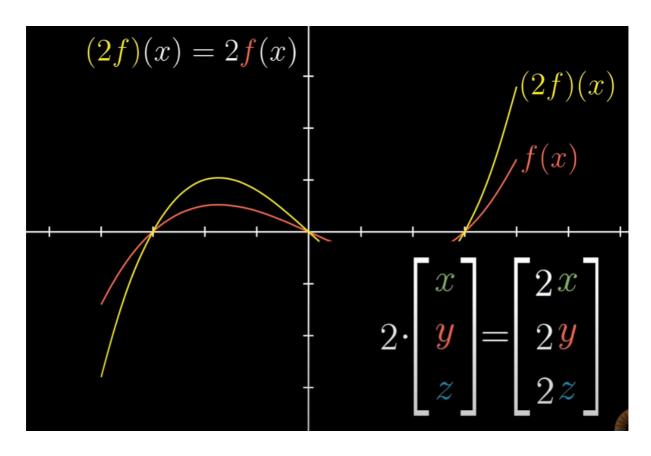
• 고유벡터 : 변환이 일어나도 span을 벗어나지 않는 벡터

Chapter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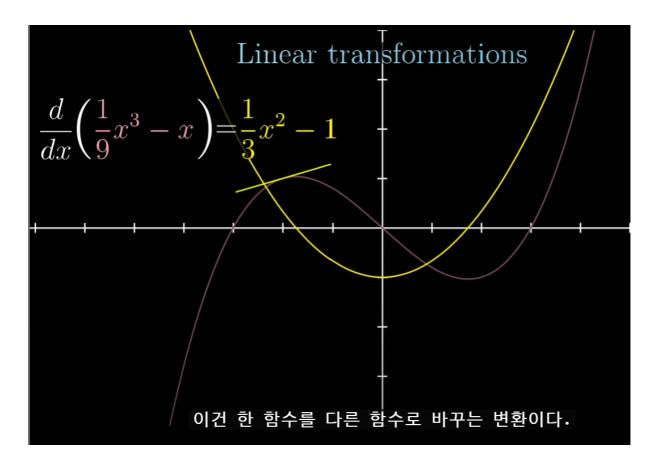
함수(function)에서의 벡터 관점을 생각해보자



• 함수의 실수배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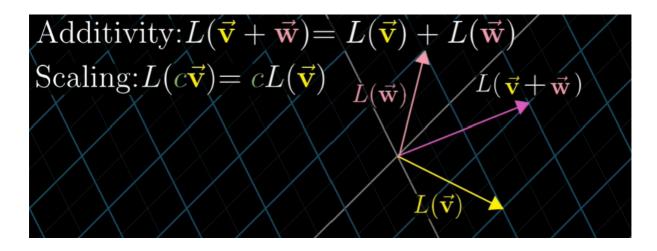


- 미적학에서 배운 선형 변환(linear transformation, operation)에 대해 다룬다.
- 우리가 흔히 배운 한 함수의 도함수가 선형 변환일 것이다!



선형성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일반적이라 함수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 벡터 표현은 Addictivity에 대한 성질!



'선형변환이 합과 실수배를 보존한다'

이러한 성질로 행렬과 벡터의 곱이 가능하다!(기저 벡터를 보존시킴)

함수에서도 이러한 선형 변환이 보존된다.

Derivative is linear

$$L(\vec{\mathbf{v}} + \vec{\mathbf{w}}) = L(\vec{\mathbf{v}}) + L(\vec{\mathbf{w}})$$

$$\frac{d}{dx}(x^3 + x^2) = \frac{d}{dx}(x^3) + \frac{d}{dx}(x^2)$$

Derivative is linear

$$L(c\vec{\mathbf{v}}) = cL(\vec{\mathbf{v}})$$

$$\frac{d}{dx}(4x^3) = 4\frac{d}{dx}(x^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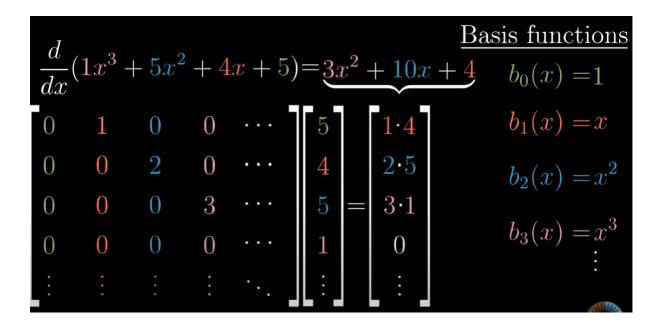
미분을 행렬로 정의해서 살펴보자!

1. 기저벡터를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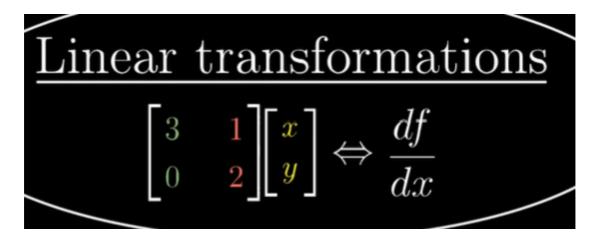
Our current space: All polynomials $b_0(x) = 1$ $b_1(x) = x$ $b_1(x) = x$ $b_2(x) = x^2$ Already written as a linear combination $b_3(x) = x^3$ \vdots

- 다항식이 임의의 최고차항을 가지기 떄문에 기적벡터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 아래 그림은 일반화

$$a_{n}x^{n} + a_{n-1}x^{n-1} + \cdots + a_{1}x + a_{0} = \begin{bmatrix} a_{0} \\ a_{1} \\ \vdots \\ a_{n-1} \\ a_{n} \\ 0 \\ \vdots \end{bmatrix}$$



• 왼쪽 행렬을 구하는 법은 아래에서 나오고 위와 같은 행렬식으로 다항식을 표현 가능하고 이는 미분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미분과 행렬곱이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Linear algebra concepts	Alternate names when applied to functions
Linear transformations Dot products Eigenvectors	Linear operators Inner products Eigenfunctions

• 이름만 다를뿐 같은 결과이다!

공리(Axioms) - 항상 성립

벡터 합과 실수배의 개념에서 나온 체크리스트

1. $\vec{\mathbf{u}} + (\vec{\mathbf{v}} + \vec{\mathbf{w}}) = (\vec{\mathbf{u}} + \vec{\mathbf{v}}) + \vec{\mathbf{w}}$ 2. $\vec{\mathbf{v}} + \vec{\mathbf{w}} = \vec{\mathbf{w}} + \vec{\mathbf{v}}$ 3. There is a vector $\mathbf{0}$ such that $\mathbf{0} + \vec{\mathbf{v}} = \vec{\mathbf{v}}$ for all $\vec{\mathbf{v}}$ 4. For every vector $\vec{\mathbf{v}}$ there is a vector $-\vec{\mathbf{v}}$ so that $\vec{\mathbf{v}} + (-\vec{\mathbf{v}}) = \mathbf{0}$ 5. $a(b\vec{\mathbf{v}}) = (ab)\vec{\mathbf{v}}$ 6. $1\vec{\mathbf{v}} = \vec{\mathbf{v}}$ 7. $a(\vec{\mathbf{v}} + \vec{\mathbf{w}}) = a\vec{\mathbf{v}} + a\vec{\mathbf{w}}$ 8. $(a+b)\vec{\mathbf{v}} = a\vec{\mathbf{v}} + b\vec{\mathbf{v}}$

따라서 공리를 만족한다면 선형대수 결과를 적용가능하다!

• 격자가 평행하고 균등하게 → 요 정의가 힘들지만 사실 위의 공리를 만족한다면 벡터의 합과 실수배가 되고 모든 벡터가 가능하다

